

한국 서화유물 모사(模寫)의 역사와 현황

박지선

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History and Recent State on Duplicates (Copies) of Cultural Heritage in Korea

Park Chi-sun

Yong In University, Korea

1. 서론

서화(書畫)유물에서 모사란 예로부터 화가들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모사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정신적인 것까지 옮겨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역대 화론 등에서 두루 찾아 볼 수 있다. 서화 모사는 과거에는 摹, 臨, 倣 등의 체계적인 방식으로 학습되었지만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의미를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서화유물의 모사가 과거에는 학습·감상·기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유물의 문화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가 우선 하게 되면서 몇몇 소수의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현대적 시각에서의 모사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욱 부각되었고, 모사 = '가짜'·'僞作'이라고 인식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僞作에 대한 문제는 계속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위작의 제작 기술도 고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20세기 초반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전통문화 기술이 대부분 상실되거나 변질되었다. 당시에는 서양문물과 함께 쏟아져 들어오는 일본 문화를 선택의 여지도 없이 받아들여야 했고, 21세기인 지금에는 무엇이 전통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를 되찾는 일은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물을 보존하여 연구·복원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모사는 보존·연구·복원의 세가지 요소를 모두 접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사는 단순하게 학습·감상·기록만 위한 것이라는 이용 범위의 한계성을 안고 있었으며, 또

한 진품을 사칭하는 '가짜'의 제작 방법 정도로 폄하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새로운 탈출구로서 '모사'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모사의 역사와 그 정의

모사(模寫)라는 단어는 동양의 서화관련 역대문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모사(模寫)·모조(模造)·모각(模刻) 등의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 문서를 모사하여 위조하였다는 부정적인 기록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은 어진(御眞) 등의 모사에 관한 기록이 차지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어진 모사에 대한 기록은 당시 선왕의 어진이 보존상태가 나빠 왕명에 의해 특별히 모사도감을 설치하였으며, 조정의 중요 대신들이 함께 참여하여 모사에 쓰이는 재료까지도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공신도상을 내리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사 받은 공신도상을 그 후손들이 다시 몇 개의 본으로 모사하여 나누어 보관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의 모사는 대부분이 실제로 후손들이 영당에 모시기 위해 선조의 초상화를 모사하는 일이었고, 간혹 좋은 글씨나 그림을 함께 감상하기 위하여 최상급 화가를 청하여 모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초상화 모사는 이렇듯 실용적인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현대에 사용되는 '모사'의 의미는 과거보다 더욱 광범위하다. 첫째, 서화유물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그리는 '현상모사(現象模寫)'를 들 수 있다. 현상모사는 오랜 기간 동안 전시되는 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원유물에 대한 대체 전시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다. 원유물의 현재 상태를 완전히 똑같이 재현해야 하므로, 충해에 의한 결손부분과 산화에 의한 갈변현상, 곰팡이 등에 의해 얼룩진 부분까지도 똑같이 재현해야 한다. 또한 원유물의 바탕재질, 안료, 손상상태 등을 과학적인 방법과 기기를 이용하여 관찰·분석한 후에 원유물에 사용된 재질과 최대한 동일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전시의 목적보다 유물을 연구·관찰하여 손상되기 이전 상태로 재현하는 '복원모사(復原模寫)'가 있다. 이 방법은 주로 과거에 후손들이 선조(先朝)의 영정을 모사할 때 손상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형태로 재현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다. 복원모사도 원유물이 제작되었을 당시의 상태를 추정하여 동일한 재질로 그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당시의 채색상태를 재현하였을 때 그 생경함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복원모사도 경우에 따라서 고색(古色)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의 모사는 모두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원유물

작하였다. 특히 일본은 건물의 문이나 벽 등에 중요 회화문화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우리에게 비해 시급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모사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예술대학이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 모사작업은 주로 이러한 교육과정의 졸업생들이 그룹을 조직하여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는 북경 고궁박물관 내에 모사실을 설치하여, 소장된 역대 서화를 모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술력은 원유물과 구별이 안될 정도로 뛰어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일본과 달리 모사의 전통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고 최근 모사에 관심을 둔 소수의 화가들에 의해 다시 부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수의 화가들에 의한 모사는 실제유물을 조사·연구 분석하여 동일재질에 의해 그 기법까지를 재현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원유물을 실견(實見)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원유물의 재질을 분석·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0년 6월, 경기도립박물관에서 원영정의 보존처리와 문중예의 모사본 제작 기증을 조건으로 이인엽 영정 2本 기증 받음을 필두로 본격적인 영정모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경기도립박물관의 획기적인 결단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문중에서 영정을 기증하게 되었다. 사실상 현대인들에게 선조의 초상화를 보관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명예이기보다는 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물의 도난 문제 및 보관환경에 의한 손상이 부담일 수 있고, 또한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매매한다는 것 또한 심적으로 불편한 일일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경기도박물관 측은 이러한 부담요소들을 해소하여 원유물을 보존처리하여 좋은 환경의 수장고에 보관하고, 전시·연구하며, 똑같은 초상화를 모사 제작하여 후손에 모시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발안한 것이다. 또 박물관 측에서도 손상되어 가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역할과 이를 연구, 전시하여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금상첨화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도 행해지고 있으며, 이 사업의 결과는 전시,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다.

경기도박물관과 비슷한 시기에 모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곳은 문화재청이다. 문화재청 주관의 문화재보수사업 중 경상북도 소재 소수서원의 소장유물들은 열악한 보존환경에서의 유물의 손상을 우려하여 전시를 대체할 수 있는 모사본 제작이 착수되었다. 이 사업은 영주시청 문화관광과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유물의 보존을 위해 전시는 모사본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워 현재까지 국보 111호 회현 영정, 보물 717호 주세붕 영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시 소재의 지방유형문화재에까지 이 사업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존대책은 김천시 소재의 지방유형문화재 69호 이승원 영정에서도 적용되었다. 김천시 문화관광과는 연안 이씨 문중과의 협의를 거쳐 원유물은 보존처리하여 국립대구박물관의 수장고에 위탁보관하고, 모사본은 원래 영당에 모시는 사업을 2003년도에 실시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모사'의 문화재보존측면에서의 활용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이 분야의 모사는 확대·발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5.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모사로 재현되는 전통기법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전통회화에 사용되는 전통회화기법의 대부분이 단절되고 말았다. 화견(畵絹)에 그리는 기법, 천연 광물안료의 사용법들은 현대에는 재현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실제 보존처리 과정 중 조사·연구·분석되어 기록되는 재질, 기법들은 원유물을 모사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될 기초자료들이다. 예를 들어 숙종(肅宗)조 초상화에 주로 쓰여지는 관복의 표현에는 앞면에는 염료계의 채색으로 문양과 농담을 표현한 반면, 뒷면에는 입자가 큰 녹청이라는 천연광물 안료를 화면 전체에 배채(背彩)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이는 안료가 앞면에서 칠해졌을 때의 생경함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뒷면에서 반혀줌으로서 은은하고 중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광물안료를 이용하여 앞면에서 살짝 칠함으로써 그 표현의 묘미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철저한 관찰과 기록을 통해 모사 화가에 의해 재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시대별로 기법이 변화하는 과정이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재질과 표현의 차이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6. 21세기가 요구하는 모사의 방향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기록매체가 개발되었다. 얼핏 생각하면 요즈음처럼 사진기가 발달한 시대에 모사라는 고리타분한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사진의 발달로 모사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인쇄라는 작업을 통해 똑같이 재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진기에 의한 복제는 사진기의 렌즈를 통해 표현되는 세계로 한정된 시각을 나타낸다. 또 인쇄 역시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한다는 점은 같지만 사진 인화지 대신 바탕재질을 원재질과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또 색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굳이 이 두 방법을 비교하자면 사진은 표면코팅에 의해 퇴색이 적은 대신 인쇄에 의한 영인본은 퇴색이 빠르다는 단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안료의 느낌이다. 안료의 두께, 광택, 입자의 크기에 따른 표현 재현은 모사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며, 옛 기법을 재현·계승할 수 있는 것 또한 모사뿐이다. 그러나 모사 역시 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똑같다하여도 100% 같을 수는 없으며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시 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게 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법륜사 금당벽화와 고송총(高松塚) 벽화의 경우 인쇄된 종이에 채색을 올려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하였는데 이렇게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용한다면 모사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소수서원 소장 지방 유형문화재 제238호인 서충대친림연회도는 모사시의 글씨 부분은 인쇄하여 영인한 후 채색을 더하고 그림부분은 모사함으로써 모사의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였다. 물론 이때 원바탕 재질에 맞추어 종이를 주문 제작 사용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7. 결론

현대에 있어서 모사의 장점을 열거하면 문화재의 보호, 전통기법의 계승, 모사를 통한 기술연마, 모사라는 전통을 통해 무형적인 관습의 계승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이 모사 사업이 초상화 분야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당장 시급한 분야로 전통사찰에 걸쳐 있는 불화들을 들 수 있다. 이 불화들은 신앙의 대상이므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왔고 또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 지정품 유무를 막론하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심지어는 주변환경 피해 뿐 아니라, 촛불에 의한 손상, 쥐, 벌레들에 의한 결실마저도 속수무책인 경우도 있다.

앞으로 모사의 전개는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뿐 아니라 전통기법의 계승이라는 면에서도 적극 권장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또 이러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화가의 양성 또한 장기간의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